

진정한 왕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역대하 1:1~13

찬송 : 211장(통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선물을 받았던 경험들 중 가장 기뻐던 때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역대하 1-9장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으로서,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역대하 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케 하셨다는 말로 시작된다.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대상 17:10-14 참조).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이에 반응하여 하나님은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으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확고하게 해달라는 것과,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도움말 :

- 창대하게 하시니라(1절, 히: 와이갓델레후): 위대하게 혹은 크게 하시니라.
- 기브온 산당(3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모세 때 지은 성막과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 번제(6절):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 허락하신 것(9절, 히: 다바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한다.
- 굳게 하옵소서(9절, 히: 아만): 확증해 주다, 지지하다, 확고하게 하다.
- 출입하게 하옵소서(10절): 백성들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감찰하는 국정 수행을 의미한다.
- 재판(10절, 히: 샤파트): '샤파트'는 판단하다는 뜻에서 파생하여 재판하는 일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통치 행위를 의미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자신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상상하며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솔로몬이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솔로몬 자신도 왕위를 견고케 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Solomon established himself firmly over his kingdom—NIV), 그가 창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배경 설명 및 대상 28:6-9 참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다(대상 17:10-14 참조). 조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대상 28:7).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다는 말에는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솔로몬이 언약에 충실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새 언약 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지 않거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

2. **심히 창대하게 된 솔로몬이 행한 첫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2-6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 **창대하게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도움말 참조)**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솔로몬은 이 번제를 통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려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면 솔로몬이 후에 타락하듯이 우리도 타락하기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자.

3. 솔로몬이 자신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7절)

하나님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끝마친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참고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왕상 3:5).

- ▶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희생 제사 혹은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매우 기쁜 나머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 ▶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의 헌신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하나님의 반응에 기초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8-12절)

솔로몬이 첫 번째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대상 17:11-14 참조)을 확고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되어있다(왕상 3:9).

▶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왜 자기 나라와 자기의 왕위를 견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확고하게 해달라는 간구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다.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것이다(10절 참조).

▶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0절 및 도움말 참조)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였다. 참고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셔서 그가 구한 것 외에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11-12절).

▶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러한 소원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 참조)으로 부름받은 당신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한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것이다(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살전 5:16-18).
2.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 목회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한 주간 내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자.